# 폐교로 방치된 분교가 영재교육원으로

## 보성교육청 거점형 명문학교 육성 800억 유치
## 명선옥 교육장, 경쟁력 갖춘 지역인재 양성 총력

보성지역 교육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폐교돼 방치됐던 분교가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변모한 데 이어 명문학교 육성사업을 통해 권역별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학교로 바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폐교돼 방치돼 있던 보성군 득량면 예당초등학교 득량분교가 지난 5월 '보성 영재교육원'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현재 4차의 시험을 거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 80명이 한여름 무더위 속에도 과학과 수학·영어·논술·중국어를 익히고 있다. 또 지역특성을 살린 판소리, 염색디자인 수업도 듣는다.

특히 영어와 중국어는 외국어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원어민과 지도교사가 협력수업(Co-Teaching)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부임한 명선옥 교육장은 같은 해 상반기에 타 영재교육원 시찰을 하면서 지역에 적합한 보성 영재교육원 모델을 구상하고, 사업추진 방향을 구체화시켜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재건축 사업을 확정받았다. 이후 명 교육장은 내일의 보성교육을 위해 투자를 해달라며 발로 뛴 결과 보성군청·보성군 장학재단·보성강수력발전소·한국 수자원공사·보성차 생산자조합 등으로부터 1억원의 지원금을 유치, 영재원을 개원할 수 있었다.

보성 교육지원청은 최근 거점형 명문학교 육성 예산 800억원을 지원받았다.

보성교육청은 도내 학생인구가 대폭 줄어 오는 2016년 이후 많은 학교가 도태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권역별 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학교 만들기'라는 보성교육의 비전을 설정했다. 또 '교육경쟁력 신장'과 '생애 설계 교육 전개'라는 2가지 정책 방향을 잡아서 계획·발전·정착 단계로 구분해 보성 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을 추진했다.

보성교육청은 앞으로 복내중학교에 사업비 242억원을 들여 6학급 120명 규모의 기숙형 학교로 만들 계획이다. 조성중에는 153억원을 투자해 9학급을 신설하고, 학생 수도 180명 이상을 수용할 계획이다. 보성고에는 224억3700만원을 투자해 15학급 450명 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벌교 제일고에 155억원을 투입해 12학급을 신설하고, 288명을 수용할 기숙사와 연립사택, 기타 시설 등을 건립한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보성지역 학생들이 '보성 영재교육원'에서 교사와 함께 실험을 하고 있다.

## 섬진강 래프팅으로 스릴 만끽~
### 25~26일 체험행사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도

'섬진강에서 래프팅을 하고, '지리산 둘레길'도 걸어보자.'

섬진강에서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래프팅 체험행사가 열린다.

전남도는 여름철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26일 1박 2일간 구례군 간전면 섬진강변 일원에서 '2012년 섬진강 래프팅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참가자는 첫날 간전면 간전교 아래 둔치에서 출발해 피아골 입구 앞 하선장까지 6km 구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둘째날은 운조루에서 화엄사까지 7km 구간의 '지리산 둘레길' 트레킹 체험 기회를 갖는다.

이번 체험 행사는 가족·친구·연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인 기준 80개 팀(3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당 2만원(팀당 8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홈페이지(www.gury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문의 구례군 생활체육회(061-781-7330)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 다슬기 잡고 무더위도 식히고

보성군 노동면 지역 주민들이 보성강 상류에서 다슬기를 잡으며 무더위를 식히고 있다. 다슬기는 아미노산 함량인 높아 숙취해소 등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성군 제공〉

## "박람회 위해 헌신 감사" 여수상의, 위문행사

여수상공회의소(회장 심장섭)는 최근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뛰고 있는 자원봉사자, 경찰관, 군 부대 장병을 위한 위문행사를 열었다.

여수상의 임직원들은 지난 6일 78개소에서 활약하는 자원봉사자, 공무원 3000여 명에게 500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했다. 7일에는 군 7391부대 장병에게 20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전달했고, 2일부터 매일 경찰관들에게 450만 원 상당의 과일을 제공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화기자 chkim@

## 고흥서 대종상 단편영화제
### 내일부터 닷새간

'제49회 대종상 단편영화제'가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고흥 종합문화회관 등 고흥군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단편영화제는 유명 가수와 배우들의 축하공연과 함께 레드카펫, 영화 출품 소개, 군민 노래자랑, 대학교수와 학생간 컨퍼런스, 흥행영화 및 단편영화 상영,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8일 종합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박병종 군수, 박금래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종상 단편영화제 추진지원단, 팬클럽 회원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 행사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설명과 추진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위촉위원은 우석 FNB 김종욱 대표, 해도물산 백영식 대표, ㈜푸른터 박진수 대표, 고흥 종합병원 류홍석 원장, 녹동 현대병원 백인규 원장, 한성푸드 김종남 대표, 흥양영농조합 김종률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박병종 군수는 "앞으로 대종상 단편영화제가 고흥에서 매년 열려 고흥의 아름다운 자연,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군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엽 영화인 협회 회장은 "대종상 단편영화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모든 대중들에게 인정받는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영화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협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ju@

## K-water 주암댐관리단 "조류 피해 막아라" 총력

K-water 주암댐관리단(단장 김관중)이 광주·전남 지역의 식수원인 주암댐의 조류발생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주암댐관리단은 홍수기전 댐유역의 수질 오염원을 호수내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수질오염원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정부기관·지역단체·군부대 등 지역사회와 공동조치로 22개 관리지점의 각종 생활쓰레기 100㎥를 수거했다.

또 태풍 '카눈'에 의한 집중강우로 인해 주암호내로 유입된 320㎥여의 부유물은 7일 만에 전량 수거했다.

이와 함께 주암댐관리단은 조류 방제전용 황토 살포선을 이용해 지속적인 조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 전 북

## 9번째 '십승地'는 부안 아닌 고창 반암
### 전국 십승지 조사 용역보고회

조선시대 널리 유포된 예언서인 정감록(鄭鑑錄)에서 말하는 '십승지지'(十勝之地=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10 군데의 땅) 가운데 9번째 장소가 부안군 호암(壺岩)이 아니라 고창군 아산면 호암아래 반암마을로 밝혀졌다.

고창군은 지난 9일 전국 십승지 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풍수학자 김상휘 박사는 "정감록(선조 때 발행 추정) 지은이가 태종때까지는 고창 아산 반암(흥덕현)이 부안현으로 돼있었지만, 이후 흥덕현을 폐하는 과정을 지명 변천사에서 정확히 추적하지 못한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14년 군·면 폐합 때 다시 흥덕진(부안 일부)을 이웃 흥덕군과 무장군에 편입해 고창군 아산면으로 옮겨진 과정을 오늘날 풍수 집필자들이 지명의 변천사를 확인하지 않은 실수"라고 말했다.

고창군은 그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반암마을 풍수와 연관된 명당을 활용해 주변 관광지와 기암·괴석을 연계한 스토리텔링화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역사박물관 관람객 20만 돌파
## 개관 10개월만에…'근대 문화' 주제 차별화·체험 다양

군산 근대 역사박물관이 개관 10개월 만에 관람객 20만명을 돌파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지역의 근대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근대 역사박물관이 10개월 만에 관람객 20만명을 모으면서 군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사,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단기간에 방문객이 많이 찾은 이유는 '근대 문화'라는 전시주제의 차별화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개장 이후 '전북의 서화가들', '기증유물 특별전', '오식도 화포의 귀환', '동국사 보물 특별전' '군산의 6.25', 근대서화 100년전' 등 다양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특히 12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다른 박물관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친절하게 안내해 호평을 받았다. 이들은 전시장 안내는 물론 전시작품 설명, 연극공연 참여, 체험활동 지원 등의 다양한 일을 소화하고 있다.

정준기 근대 역사박물관장은 "전국 최고의 근대 역사박물관으로서 통상적인 유물 전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하고 품격 있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참여와 사랑을 이끌어내는 박물관을 만드는데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남원시 시민 공모사업 사전 공개

남원시는 각종 공모사업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공개해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남원시는 시민이 공모사업에 해당하면서도 응모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려고 공모사업 내용을 공개키로 했다.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은 관련 부서에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공모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축산 분야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3개 읍면동과 마을회관에 안내책자를 비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한 공모사업은 총 78개 사업으로 농정분야 13개 사업, 과수·원예·특작분야 등 55개 사업, 축산분야 10개 사업 등이다.

농업 행정의 경우 후계농업인 육성,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영농도우미 신청, 출산 여성도우미 사업 등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공모사업이 많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새만금 농업용지 5공구 공사 하반기 발주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지구 농업용지 중 개발여건이 양호한 5공구(전북 김제시 광활면) 공사를 하반기에 발주한다.

5공구 1513ha는 오는 2015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농산, 새만금팜, 초록마을 등 3개 농업회사법인이 입주할 700ha는 2015년까지 기반을 조성하고, 2016년부터 농업시설에 투자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새만금 방수제 9개 공구 중 미착공 상태인 2개 공구도 하반기에 발주한다. 농업용지 5공구에는 1436억원이, 방수제 2개 공구에는 1593억원이 투입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요트 레이스

지난 10일 부안군 변산면 격포 앞바다에서 열린 요트 2인승(420)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제7회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은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부안 격포항과 격포, 고사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부안군 제공〉

## 단신

### 전북청 과학수사대 수화(手話) 교육

전북청 과학수사대는 장애인(농아자) 인권 보호를 위해 도내 과학수사 요원을 대상으로 수화(手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장애인단체 수화 통역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수화교육은 한달에 한번 이뤄지며, 도내 과학수사요원 30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과학수사요원들은 현장에서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사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소개와 인사요령, 신고방법 등의 수화요령을 배우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19일까지 연장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이 오는 19일까지 나흘간 연장된다.

군산시는 선유도 해수욕장을 오는 15일 폐장할 계획이었으나 불볕더위로 섬을 찾는 관광객이 줄지 않고 있어 개장기간을 나흘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썸머 페스티벌'과 '선유도 한밤의 해변축제'를 잇따라 여는 등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6월 29일 개장 이후 지금까지 4만2000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 남원 대강면·노인회, 섬진강 주변 환경정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남원시 대강면은 대강면 노인회와 함께 최근 섬진강 주변에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행락객이 보다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강면은 순창군과 곡성군을 경계로 하는 섬진강이 흐르고 있어 매년 여름 휴가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남원시 대강면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행락지 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

### 순창군 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

순창군은 최근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농가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비상발전기에 대해서는 정상 가동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육계농가 비상발전기 시설사업은 군비 6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등 총 10대에 1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